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여건 조성에 관한 연구

2014년 11월



과 정 : 제11기 핵심리더과정
소 속 : 전라북도
교 번 : 37번
성 명 : 이 혜 성

목 차

I. 서 론	9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9
2. 연구방법 및 한계	11
II.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41
1.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욕구	14
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선호도	15
3.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현황	16
III. 전라북도 취업정책 분석결과	12
IV. 취업여건 조성을 위한 제언	22
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유형분석과 인적 DB구축	22
2. 선행학습평가인정제도의 모색	25
3.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개최	25
4. 언어·문화자본을 활용한 전문 직업군의 지속적인 발굴	26
5. 일반직으로의 직업 확장 모색(도시지역)	27
6. 도·농간 인력미스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	28
7.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공공일자리 창출(농촌지역)	29
8.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30
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상담사의 배치와 교육	30
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문제 지원	33

11. 취업지원 전달체계 개선	31
12. 한국어 교육 강화	32
13.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 강화	33
 V. 결 론	 34
 참고문헌	 35

I.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필자는 2011년도에 전라북도 대외소통국 다문화교류과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보았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다문화포럼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주제로 이로미 교수와 박재규 교수를 초청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의 방향과 교육훈련의 역할’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및 취업지원 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먼저 듣고 50여명의 포럼위원과 종합토론을 벌인 경험이 있다.

한국인 여성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좋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지만 전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자료와 노동부의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개발 연구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현황을 검토하고 이들의 미취업 원인과 취업욕구를 분석하여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라북도지사와 김제시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취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주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였다.

취업애로사항으로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부족, 농촌지역 자녀보육 시설부족, 한시적인 공공근로 일자리예산 등을 문제점으로 호소했다.

그 외에 업무상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접할 수 있었는데 출신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여성은 공무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여성도 있었고, 또 본인의 의지로 한국어를 독학하여 오늘날에는 방문지도교사로 다문화가족을 가르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감코리아 기자로 활동하는 자랑스런 여성도 있었다.

한편 가난한 산골로 시집을 와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에게 어린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새벽 첫차를 타고 읍내에서 식당일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여성도 만나보았다.

또한 젓먹이가 젓을 때면 시아버지에게 애를 맡기고 농공단지에 취업하여 친정에 송금하여 좋은 집을 짓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새댁도 있었다.

모두다 한국에 꿈과 희망을 갖고 온 여성들이며,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은 우리지역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이동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 흐름을 어떻게 잘 수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었음을 전세계적으로 역사를 통해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존의 이민 유출의 나라에서 이제는 이민 유입의 나라로 변화된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발전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종교단체의 교단사업의 일환으로 대량의 국제결혼, 1990년 중반 이후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산업연수생 유입, 그리고 탈 농촌화의 결과로 농어촌에 남아있는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으로 국제결혼은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다.

<결혼이민자 증가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1월	2012.1월	2013.1월
계(명)	4,390	4,947	7,051	8,269	8,848	9,152
여 성	4,286	4,812	6,832	8,028	8,388	8,860
남 성	104	135	219	241	260	292
증가율	3.3%	12.7%	42.5%	17.3%	4.6%	5.8%

※ 2011년부터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갑작스런 증가는 국가적인 거시적인 문제에서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2006년도에 국제협력과에 다문화가족담당기구를 신설하였고 2011년도에는 다문화취업담당을 추가로 신설하여 다문화교류과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의 의미를 이주자의 사회 통합논의에서 경제적 통합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특성, 고용 및 취업교육실태를 전라북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방향을 체계적이면서 지역밀착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2012년도에 실시한 제2차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의 취업 및 경제활동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12년도의 제2차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2009년 제1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의 차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2012년에 실시된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15,341가구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취업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¹⁾ 2012년 전체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2009년 36.9%에 비해 16.1%p 증가하였으며, 2012년 전체 여성 고용률 48.4%에 비해 4.6%높은 것이다. 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귀화

1) 정해숙(2013),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과제, 여성가족부 제14차 다문화포럼문 p.1.
위 실태조사 분석 부분은 전기택·정해숙·김이산·김영란·주재선 등에 의해 수행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여성가족부)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자 등의 비율은 29.9%로 2009년(21.6%)대비 8.3%p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귀화자의 일용직 비율도 2009년 14.8%에서 4.1%p 증가한 18.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에게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84.1%가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어려움 없다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가 서툴러서 25.5%, 내게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22.3%, 한국에서 경력이 부족해서 18.3%, 외국인에 대한 차별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취업을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5.7%), 모국 학력 및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서(5.1%)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의 지난 1년 간 월평균가구소득을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0~2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30.9%를 차지하는 등 전국다문화가족의 89.0%가 우리나라 전체 월평균가구소득 408만원(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다문화가구 비율은 2009년(59.7%)에 비해 대폭 감소한(17.8%p) 41.9%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가구 중 월평균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2009년 25.5%에서 2012년 17.7%로, 지난 3년간 7.8%p 감소한 것에 비하여 볼 때 다문화가구의 감소폭이 월등히 더 큰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가구중 저소득 가구 비율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원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증가 등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가구 비율 또한 5%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4.8%(2011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2009년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수혜율이 8.3%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비율 32%를 두배 이상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2012년에 실시된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지난 3년 간의 다

문화가족의 변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율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의 저소득 가구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89%가 우리나라 전체 월평균가구소득 408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소득분위에서 2-3분위 저소득 계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통계청, 2012. 3 자료). 이는 다문화가족 취업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다문화가족취업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몇가지 단서를 제공해 준다.

김옥엽(2011)²⁾의 석사학위 논문은 인구사회학적으로 한국거주기간, 연령, 결혼 전 국적, 결혼 후 자녀, 한국국적, 월평균가구소득은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반면에 한국에서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교육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 인천 여성만을 분석한 것으로 2009년 당시 인천시가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거나 아니면 인천에 공단이 많아 일정한 직업훈련 없이도 바로 취업이 가능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는 지역형편상 농업 및 일부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가정경제 또한 넉넉하지 못하여 당장의 생계를 꾸려야하는 처지에 있는 대상자가 많아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공동주도형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과 취업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 서비스는 절실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라북도 2014년도 7월기준 업무보고자료와 전북다문화포럼(2011~2013)자료집,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자료집의 정책제안을 재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김옥엽(2011), 인천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II.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³⁾

1.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욕구

여성가족부의 선행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관련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0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34.2%만이 취업상태에 있고, 미취업상태인 여성의 대다수인 82.3%가 향후 한국에서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설동훈 외, 2006). 경기도 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선 외(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30.2%만이 취업한 상태이고, 비경제활동 상태인 여성들의 73.5%가 여건만 된다면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2010년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36.9%만이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하였고, 미취업상태인 여성의 86.2%가 향후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김승권 외, 2010).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 84.1%가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즉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조사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한국사회 여성들의 평균 고용률인 48.4%에 비해 4.6%p 높은 53%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취업자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다수인 70~80%는 여건이 되면 취업하고 싶다고 하여, 향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높은 취업 희망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각종 취업지원정책의 수혜를 입은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았다. 2010년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11.4%만이 한국에서 지원되었던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4.9%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업훈련에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여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지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교

3) 박주철(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방안, 20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워크숍 자료집, pp.74~76.

육훈련 확대 및 다양화는 향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주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면, 여성결혼이민자 적합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선호도

여성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 고용정보원(2008)은 여성결혼이민자 특화직종으로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가정 상담원, 다문화음식, 다문화미술, 지역특화 문화예술상품, 지역특산물 제조 및 판매 등의 직종을 유망직종으로 제시하였다.

장명선 외(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는데, 교육서비스(원어민강사, 학원강사, 통·번역사 등), 보건복지서비스(간병인, 케어복지사, 산모도우미 등), 사업지원서비스(여행사직원, 건물청소원, 골프장직원 등), 개인서비스(미용사, 피부관리사, 봉제수선인 등)등의 서비스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관광안내인, 한식조리사, 요리보조인 등), 도소매업(쇼핑몰판매인, 소매인 등), 제조업(생산근로자)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취업 유망직종, 특화직종, 창업 업종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취업 유망직종으로는 산모도우미, 방과후 교사, 바리스타, 의류수선사 등이 있으며, 특화직종으로는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한국어보조강사, 통·번역사,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이주민 관련 업무 사무직 등이 해당되며, 창업업종으로는 다문화음식점, 수공예품악세사리 판매점, 다문화상품 무역업, 인터넷몰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대한YWCA연합회(2008)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직업관련 기초 역량을 모두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정보화교육, 요리, 제과제빵, 이·미용, 양재교육 등을 선정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한 언어적 자질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직종으로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2월 전라북도가 실시한 여성결혼이민자 1,993명을 대상으로 취업희망분야 및 근무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희망분야에서는 전문직이 29.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분야가 27.4%로 뒤를 이었다. 근무형태는 상용직이 압도적이었으며 시간제도 13.2%의 선호도를 보였다.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희망 분야 및 근무형태 실태조사>

취업희망분야								근무형태				
소계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서비스	단순 노무	농림 어업	기타	계	상용	일용	임시	시간제
1,993 (100)	595 (29.9)	211 (10.6)	279 (14.0)	546 (27.4)	272 (13.6)	31 (1.6)	59 (2.9)	1,993 (100)	1,598 (80.2)	104 (5.2)	28 (1.4)	263 (13.2)

- * 전문직 : 학원강사,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통번역사, 교사 등
- * 기능직 : 도배, 재봉, 조리, 사무보조, 공예품 제작 등
- * 서비스 : 이미지, 요양사, 간병인, 여행가이드, 해설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시설 종사 등

3.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현황⁴⁾

전라북도는 2011년도부터 취업지원을 당면현안과제로 채택하여 다문화교류과내에 다문화취업담당을 신설하여 전라북도에 적용가능한 여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은 중앙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와 연결된 지원사업과 도 자체 단위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은 전라북도의 특성을 보이지 않기에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 자체사업과 도내 유관기관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4)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방안 연구 p.50~54, 전북발전연구원.

<연도별 교육 및 취업 현황(2011~2014)>5)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직업훈련교육			취업인원 (취업율)	자격증 취득	자체사업비 (도비40%, 시군비60%)
		계	자체 사업	유관기관 사업			
계		830	550	280	496(59.7%)	110	840
2011년	14개 과정	100	100		33(33%)		120
2012년	25개 과정	200	200		162(81%)	27	320
2013년	27개 과정	250	125	125	212(85%)	83	200
2014년	29개 과정	280	125	155	89(32%)	진행중	200

14개 시군별 직업훈련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0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접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요리, 네일아트, 이·미용 분야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았고,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문화이해강사나 원어민강사 양성과정도 개설되었다. 그 밖에도 온라인쇼핑몰운영인력양성, 가죽공예, 커피바리스타 등 9개 직종 14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취업연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2012년에는 200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총 25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1년과 비교하면 11개의 교육프로그램이 더 개설되었으며, 요리, 이·미용, 다문화 및 다국어강사 양성과정도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컴퓨터 자격증 취득, 산모도우미양성, 병원코디네이터, 지역관광 통역해설사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전라북도는 2013년 5월 16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5개의 유관기관⁶⁾간 취업정보 공유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직업훈련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5) 전라북도 대외소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제313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자료.

6) 5개 유관기관 27명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명, 고용센터(전주, 군산, 익산, 정읍) 4명, 새일센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5명,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명, 전라북도 다문화교류과 3명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5:5 비율로 연간 250명 이상까지 직업훈련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까지 실무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유관기관 교육 및 취업 협조방안,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시군센터 협조방안 및 2014년 교육과정 확대방안을 상호조정 논의하였다.

2014년 7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은 29개 과정에 280명으로 시행주체별 시군별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14년 직업훈련 실시현황>

① 도 자체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4개 과정 155명

시군명	직업훈련프로그램	교육기간	교육인원	비고
계	15개 과정		125명	
전 주 시	• 결혼이민자번역과정양성반	‘14.4~ 7월	10	
군 산 시	• 산후도우미양성과정	‘14.6~ 7월	10	
익 산 시	• 익산향토음식사(Local Food) 양성교육	‘14.3~ 4월	10	
정 읍 시	• 한식조리기능사	‘14.3~ 6월	10	
남 원 시	•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	‘14.3~ 6월	10	
김 제 시	• 다문화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14.4~ 9월	10	
완 주 군	• 다문화가정 농업지원과정	‘14.2~ 9월	10	
진 안 군	• 인터넷전자상거래	‘14.3~11월	5	
	• 한식조리사	‘14.3~ 6월	5	
무 주 군	• 1급아동요리지도사	‘14.3~ 6월	10	
장 수 군	• 한식조리사 심화반	‘14.5~ 8월	10	
임 실 군	• 다문화강사양성교육	‘14.4~ 9월	8	
순 창 군	• 지역문화관광국제해설사과정	‘14.5~ 7월	8	
고 창 군	• 간호조무사양성과정	‘14.3~’15.2월	4	
부 안 군	• 보육교사(3급) 양성반	‘14.3~12월	5	

② 유관기관 연계사업 : 14개 과정 155명

시군명	직업훈련프로그램	교육기간	교육인원	운영기관	비고
계	14개 과정		155명		
전 주 시	• 쿨트교실	‘14.4~6월	20	여성교육문화센터	
	• 봉제교육	‘14.4~5월	10	여성교육문화센터	
	• 헤어미용 등	‘14.4~5월	6	고용센터	
군 산 시	• 제빵제과자격증과정	‘14.3~ 5월	20	새일센터	
	• 한식조리 등	‘14.1~12월	10	고용센터	
익 산 시	• 봉제교육	‘14.4~ 8월	10	새일센터	
남 원 시	• 다문화세계음식요리	‘14.4~ 6월	24	새일센터	
김 제 시	• 파티쉐과정	‘14.1~ 5월	6	외부지원	
	• 바리스타	‘14.3~ 6월	4	외부지원	
	• 제과제빵기능사	‘14.4~ 6월	11	새일센터	
완 주 군	• 피부관리 자격증과정	‘14.4~ 7월	5	고용센터	
무 주 군	• ITQ 컴퓨터 자격증	‘14.1~ 10월	7	KT서포터즈	
임 실 군	• 생산품질관리원양성	‘14.3~ 4월	2	새일센터	
순 창 군	• 발효전문가과정	‘14.3~ 4월	20	새일센터	

※ 새일센터 8과정 117명, 고용센터 3과정 21명, KT 등 3과정 17명

Ⅲ. 전라북도 취업정책 분석결과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들은 타 시도와는 차별적이며, 선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도 보완할 것들이 있다.

첫째 진행되는 취업훈련프로그램의 문제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가나 한국어 수준, 개개인의 학력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세부 집단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동질성을 상정한 채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러한 방식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습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프로그램 중도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을 ‘여성결혼이민자’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며, 오히려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강사풀이 적고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취업상담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담당자의 취업교육 경험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은 개인적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져 종종 가정불화(이혼이나 가출, 집안일 소홀로 인한 다툼 등)로 이어지는 이율배반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얻기 어려운 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역량이 크게 좌우하지만 취업에 대한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각 기관간(고용지원센터, 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실무협의회의가 구성되었음에도 상위 중앙부처로부터의 사업지침 및 예산배분기준 등이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연계 및 조정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각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교육대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모집과 수요

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취업 연계를 위한 모집→교육→취업연계→사후관리→재교육의 각 단계별 기관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 및 상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초기 직업 교육에 집중하며 여성의 직업의식 및 직업훈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새일센터는 실무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구인업체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는 다양한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취업지원금제도, 그리고 다양한 직업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⁷⁾

다섯째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취업지원의 경우 담당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육과 훈련 수요자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이전에 충분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정작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취업교육의 내용이 상이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당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자격증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훈련은 장기간의 교육을 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지속적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7)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p.114」, 전북발전연구원

IV. 취업여건 조성을 위한 제언

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유형분석과 인적 DB구축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에 따라 문화적·사회적으로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진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의 집합체이다. 이들을 동질집단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을 동질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구상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가 효과적이려면, 이들의 국적, 학력, 경력 등의 인적자본은 물론 이들의 취업 목표, 취업 욕구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들의 상이한 특성에 근거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유형분석

구직자들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유형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i) 개인 배경, ii) 결혼배경, iii) 인적자원, iv) 취업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1) 개인적 배경

개인적인 배경으로는 당사자의 학력과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학력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국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또는 사무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일이 분명하고 구직 과정에서도 상세한 경력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훈련 준비를 하는 점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구직 유형이 달라진다. 경제적 수준이 양호한 경우는 준비기간을 가진 후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이주 후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택하게 되며 본국의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

8) 박상우 (2011), 「경상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창출방안 p.65~68」, 대구경북연구원.

2) 결혼배경

결혼배경으로는 가정 경제 수준과 결혼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구직이유 및 추구하는 직업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빈곤한 가정의 경우 구직은 선택이 아닌 생계를 위한 필수가 되며,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경우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일하고자 하며 현재의 일보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취업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결혼의 유형도 구직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결혼의 유형은 종교혼, 중매혼, 연애혼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연애혼이 다른 유형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구직의 사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혼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결혼하는 것으로 주로 통일교와 관련이 많다. 이들 여성은 대체로 학력이 높으며 농촌의 저학력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중매혼의 경우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에 오기 전 이주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본국의 가족을 돕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주의 기회를 원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의 경우 한국의 남성이 자신보다 저학력인 여성과 결혼하는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3) 인적자원

인적자원은 언어자원과 본국에서의 경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2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크게 달라 진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의 여성이나 조선족과 같이 한국어가 능통한 여성들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하지만 태국어나 몽골어를 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한국어는 취업에 있어 필수적이다. 학력이 낮더라도 한국어가 능통하면 저임금직종에는 즉시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좋은 일자리 일수록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변적 일자리를 벗어나고자 할수록 유창한 한국어는 필수적이다.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여성의 경우 한국어가 어눌해도 영어강사로 인기가 높은게 현실이다. 이는 한국에서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본국에서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낯선 환경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본국에서의 경험은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직업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장·단기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취업욕구

마지막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는 취업의지와 추구하는 일, 구직이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에 대한 의지는 구직욕구와 구직활동에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취업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다르다. 또한 추구하는 일이 어떠한지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는 구직자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추구하는 일의 성격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없는 주변적인 일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참여 이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는 본국으로의 송금의 경우와 한국에서 구성된 가족 경제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이유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집안에 머물기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타인들과 만나며 활동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로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 양호한 편이다.

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적 DB구축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적 DB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 유형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자녀현황, 가구의 여건, 직업능력, 한국어 정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본 통계가 정비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이는 향후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학습평가인정제도의 모색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던 경력을 가진 여성들도 상당수 존재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로 이주 후, 자신의 과거 학력과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생산직 또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 경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경력이 주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행학습평가인정제도(Prior Learning Assessment & Recognition)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종 학습의 결과를 진학, 취업, 승진에 필요한 점수 또는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력이주자의 경우 이들의 본국 자격과 학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들이 보유한 직업능력과 유입국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이를 보완하여 유입국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⁹⁾

3.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취업박람회’개최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

9) 장서영외(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 분석 p.111, 한국고용정보원.

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취업박람회는 직업훈련시설 및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기관을 알리고 취업 가이드북도 제공해주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와 취업교육기관의 홍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인 하나의 사업으로 어울림 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작은 다문화 박람회 및 취업박람회’를 기획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4. 언어·문화자본을 활용한 전문 직업군의 지속적인 발굴

최근 정부가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자질을 경제적으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및 문화 자원의 활용은 이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과의 비경쟁 분야에서 이들의 강점인 언어적 자질을 개발하고자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언어자원을 활용한 분야로는 공공기관 취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결혼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민간 기업 및 병원의 외국인 대상 상담원이다. 민간기업(예: 삼성화재의 외국인 대상 상담원으로 10명이 취업중이며, 전일제 근무시 월 1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음), 병원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것이다. 이외에 학원의 강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내 주요 관광지별로 외국인을 위한 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방안과 함께 관광사에 소속되어 관광통역 안내원 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전라북도의 경우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분야로는 다문화강사가 있다. 전라북도

10)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방안 연구 p.126, 전북발전연구원.

11) 박상우(2011), 경상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창출방안 p.84, 대구경북연구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와 도교육청이 MOU를 맺고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 주로 다양한 나라의 위치, 역사, 음식, 의복 및 기타 생활규범 등을 각종 시청각자료나 소품을 이용해 강의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군은 시간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양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군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취업처와의 유기적인 관계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5. 일반직으로의 직업 확장 모색(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직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과 더불어 일반직으로의 확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김이선(2008)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선정한 기준으로 ① 사업체의 이미지 개선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직종, ②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를 도울수 있는 분야, ③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④ 기존에 진입하고 있으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분야, ⑤ 국가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 ⑥ 여성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 모델을 통해 다른 이민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야, ⑦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분야 등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직종은 아래와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

분 야		직 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원어민강사, 학원강사, 보육강사, 통번역사 등
	보건복지서비스업	간병인, 케어복지사(아동,노인),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여행사직원, 건물청소원, 골프장직원, 프로그래머 등
	개인서비스업	국제결혼정보회사원, 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가사도우미, 세탁처리원, 봉제수선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호텔업	관광안내인, 관광호텔종사자 등
	한국음식점	한식조리사, 접객(서빙)종사자 등
	기타 외국 음식점	외국요리전문점, 요리보조인 등
	제과점 등	제과제빵 기술자 등
도소매업	1차상품 및 여성관련 상품업	농산물판매인, 쇼핑물 판매인 소매인(공예품, 화장품, 의류 등)
제조업	식품가공 등 제조업	생산 근로자
기타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및 자연환경 보수관리인 또는 보조인 등

자료 :조규호 외(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008년

6. 도·농간 인력미스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와 농촌간의 노동력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농간 노동력 순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도시 유희 취약계층 일자리와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 미스매칭이란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채용 기업이 바라는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도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취업에 취약한 근로빈곤층이 상주하고 있는 반면, 농촌에는 항상 농업일손

이 부족 현상이 일고 있다. 영농철에는 웃돈을 주더라도 일손을 확보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농간의 노동력 미스매칭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인력매칭 사업은 계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촌의 일손부족을 일부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¹²⁾

7.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공공일자리 창출(농촌지역)

농촌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취업처 발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당분간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를 자원화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다문화테마사업 모델을 개발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적인 테마를 농업이나 비즈니스 소재들과 융합해서 문화산업화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다문화테마사업 모델은 다문화패밀리 농장, 체험교실, 레스토랑, 장터, 이민관, 축제 등 모두 6가지 유형으로, 각 유형별로 구성콘텐츠와, 사업방향, 해외사례 등 사업화 방안을 제시해 놓았다. 이것은 농촌에 거주한다고 또는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든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농촌에서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들의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례형 공동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지역농협,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 법인이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학력 제한 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12) 박상우 (2011), 경상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창출방안 pp.90~91, 대구경북연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 교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¹³⁾

8.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양육과 가사에 크게 매여있기 때문에 전일제로 근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한국어도 미약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의 시간제 일자리는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잠재노동력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률만을 증가시키는 1~2개월짜리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써의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상담사의 배치와 교육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성 및 가족 특성 등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 상담과 취업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필요하다. 현재는 고용지원센터나 여성새일지원센터 등의 취업상담사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이들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 취업 기관의 취업상담사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취업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마련

13)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pp.124~125, 전북발전연구원.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각 기관의 역할 속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문 취업상담사의 배치와 교육은 필요하다.¹⁴⁾

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문제 지원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아지원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특히 가사노동과 자녀 출산이라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가 절대적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더더구나 육아지원은 시급한 일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육아부담을 덜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 거주여성들은 어린이집 이용도 쉽지가 않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들 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후 출산과 양육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소요하게 된다. 비록 본국에서의 학력이 높고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 단절이 쉽게 일어나게 되며, 이를 만회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11. 취업지원 전달체계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단절성과 중복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도 부분적으로 미흡하지만 물량 면에서 상당한 정책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감사원, 2011), 오히려 현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업의 훈련성과등이 낮은 것은 취업성과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정책전달체계간 효율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지역기관들의

14)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p.119, 전북발전연구원

역할 분담과 네트워킹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의 자료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여성가족부 등 정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훈련수료 인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위탁 직업훈련기관 순이었지만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상용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위탁훈련기관이 5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현상은 전북에서 진행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취업연계에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과의 취업지원에서의 역할분담과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지만 기능 특성상 취업지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간의 기능적 연계가 필요하다.

12. 한국어 교육 강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2012년부터 교육시간이 확대되어 연간 총 40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2단계 200시간을 필수 운영하되 선택사업을 두어 총 400시간을 운영하는 과정인데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시간의 강화와 지원비가 요구가 제기되어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비를 도 자체 별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따라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안에 기초소양프로그램으로 취업과 관련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던지 혹은 결혼이민여성인턴

15)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p.121, 전북발전연구원

제로 고용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이해 하에서 작업장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석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앞서 제기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¹⁶⁾

13.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 강화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민으로서 출신국의 인적자본이 이주국가인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대다수가 본국의 학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하는 과정을 취업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에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입국하게 되면서 연령과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인적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신국 학력과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끼치고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과 맞물려 현재 전라북도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비율이 20~29세가 40.5%에 이르고 이들의 거주기간이 짧고 중학교 이하 학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이들에 대한 인적자본을 강화시키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자체 운영하는 중·고교 정규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도립여중고가 존립하기에 이곳을 통하여 여성결혼민자들이 학력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중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반의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¹⁷⁾

16)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p.126, 전북발전연구원.

17)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p.129, 전북발전연구원.

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주도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례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부 사기결혼사례를 접한 내국인들은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를 돈벌러 온 이주노동자로 의심하거나 혹은 결혼이민자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식구들도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결혼이민자를 값싼 가용 노동자로 보고 열악한 환경에 단순 노동자로 투입할 산업인력으로만 대하곤 한다.

공공기관인 전라북도과 유관기관에서도 일자리 몇 십만개 달성이라는 조급한 고용목표만을 내세워서 여성결혼이민자를 2~6개월 이내의 단기 속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치중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당장의 일자리 마련과 단순 기술교육보다는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수조건인 한국어의사소통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자녀양육서비스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희망자에 한하여 소정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이나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역량을 발굴 개발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도록 사후관리까지 하여 코리아 드림을 실현시키는데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

참 고 문 헌

- 장서영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이로미 외(2011), 2011년도 제2차 전북다문화포럼 자료집, 전북발전연구원.
- 박신규(201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박주철 외(20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실천의 현주소와발전방안, 2013 다문화가족정책 워크숍자료집, 전북발전연구원.
- 김옥엽(2011), 인천지역 결혼이민여성성의 취업결정요인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아리(201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2013.2.26.),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도자료.
- 전라북도 대외소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제313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자료.